

‘我看’의 의미기능에 관한 소고

金株希*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我+看+X’의 통사적·의미적 특징
 - 2.1 ‘我+看₁+X’
 - 2.2 ‘我+看₂+X’
 - 2.3 ‘我+看₃+X’
3. ‘我看’의 담화표지로서의 문법화
 - 3.1 ‘看’의 의미변화와 ‘我’의 기능
 - 3.2 ‘我+看+X’의 문법화
 - 3.3 ‘看來’와의 평행성
4. 맺는말

1. 들어가는 글

현대중국어에서 감각동사 ‘看’은 1인칭대사 ‘我’와 결합하여 ‘我看’¹⁾의 형태로 다양한 구문에 사용된다.

먼저 ‘我看’이 출현한 용례를 살펴보자.

* 柳韓大學校 中國비즈니스科 講師.

1) ‘看’은 1인칭대사뿐 아니라 2인칭대사 ‘你’와도 결합하여 다양한 구문에 사용되지만 그 의미기능의 변화가 ‘我看’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본고에서는 고찰범위를 1인칭으로 제한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1) 我看他抱着你回來的。²⁾

그 사람이 너를 껴안고 오는 걸 봤어.

- (2) 我看你們都一樣。

내 보기엔 너네 다 똑같아.

- (3) 我看你還是帶他去醫院吧。

제 생각엔 당신이 저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에서 ‘看’은 ‘他抱着你回來’라는 상황을 행위주체 ‘我’의 눈으로 ‘보았다’는 객관대상에 대한 행위주체의 구체적인 시각적 행위를 의미하는 동작동사로 사용되었다. (2)에서는 ‘看’의 대상이 ‘你們’이긴 하지만 여기서 ‘看’은 행위주체 ‘我’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你們’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이에 근거해서 생각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객관사물에 대한 단순한 시각적 행위를 나타내는 (1)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감각동사로서의 동작성은 여전히 유지된다, 즉 ‘보다’라는 구체적인 시각적 행위가 발생한다. (1)(2)와 달리 (3)의 경우는 ‘看’이 실질적인 시각적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후행하는 절 ‘你還是帶他去醫院吧’는 시각적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분이고, ‘我’ 역시 시각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3)에서는 ‘我’와 ‘看’이 (1)(2)에서보다 의미적으로 더 긴밀하게 결합되어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단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我看’의 후행성분은 화자 ‘我’가 생각하는 내용을 표현한다. 이러한 ‘我看’은 화자의 견해를 나타내는 일종의 담화표지³⁾로 볼 수 있다.⁴⁾

통사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이상의 세 예문은 모두 ‘我+看+X’의 동일한 형

2) 본고에 언급된 예문은 모두 북경대학교 현대중국어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별도 표기는 생략한다.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3) 담화표지이란 그것이 나타내는 문장 또는 발화의 명제적 또는 진리 조건적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화자의 믿음, 전체, 태도 등을 보여주는 언어적 형태를 나타낸다. 대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 또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한규, <한국어 담화표지어 ‘아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67, 2012, 145쪽.

4) 曾立英(2005), 陳振宇·朴珉秀(2006), 曹秀玲(2010), 王慶霞·王林霞(2011), 岳昕(2013) 등 ‘我看’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我看’을 담화표지로 간주하고 있으나, 許家金(2009)과 같이 담화표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식으로 구성되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我+看+X’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분 ‘我’, ‘看’, ‘X’ 사이의 의미관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1), (2), (3)의 ‘看’을 ‘看₁’, ‘看₂’, ‘看₃’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각각 구성한 ‘我+看+X’ 형식에서 ‘看₁’, ‘看₂’, ‘看₃’이 어떤 의미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들 의미기능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看₁’, ‘看₂’, ‘看₃’과 다른 성분 ‘我’, ‘X’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담화표지 ‘我看’의 출현 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我+看+X’의 통사적 · 의미적 특징

앞서 제시한 예문을 통해 ‘X’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我+看+X’ 형식에서 ‘看’이 나타내는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X’의 변화를 중심으로 ‘我+看+X’ 형식의 어떠한 통사적 특징들이 ‘看’의 의미기능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통사적 특징과 의미 변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도 있었다. 曾立英(2005)은 ‘我看’을 관찰의미를 나타내는 것, 인지(認知)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담화표지로 구분하고, ‘我看’ 뒤에 시제성분이 출현하면 주로 관찰의미를, 목적절(小句賓語)이 출현하면 주로 인지의미를 나타내며, 인지의미의 허화에 의해 ‘我看’이 담화표지로 발전했다고 하였다. 姚占龍(2008)도 역시 동작의미, 인식양상의미, 담화표지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馬雲霞(2011)는 ‘看’의 의미를 관찰 · 짐작(估量)의미와 추측(推測)의미로, ‘我看’의 의미는 화자의 주관추측 · 의견 ·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岳昕(2013)은 ‘我看’을 ‘看’이 보다(觀看) 등의 동작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화자의 관점 · 태도를 나타내는 것, 두 가지 경우로만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看’의 감각동사로서의 용법과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에 대해

서는 별 이견이 없지만 감각동사에서 담화표지로의 변화발전 과정에서 출현하게 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견해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曾立英(2005)과 姚占龍(2008) 등이 비록 감각동사에서 담화표지로의 변화발전 과정중의 중간단계 즉 인지의미 또는 인식양상의미 단계에 주목하기는 했지만 서술과정에서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와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我看’이 나타내는 의미와 ‘看’이 나타내는 의미 또한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언어의 변화는 하나의 연속체를 이루며 진행된다. 때문에 시작과 끝의 단절적인 고찰이 아닌 전 과정에 대한 고찰이 수반되어야만 언어현상에 대한 더욱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看’의 의미변화의 단계성과 의미사이의 경계 불명확성에 유의하면서 ‘我看’의 의미기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1 ‘我+看₁+X’

‘我+看₁+X’ 형식에서 ‘看₁’은 ‘눈으로 대상을 보다’라는 행위주체의 구체적인 시각적 행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감각동사로 쓰인다. 이때 시각적 행위의 대상인 ‘X’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다.

- (4) 剛纔那個男人, 我看了。覺得……覺得不自然。
좀 전에 그 남자, 내가 봤는데, 좀 어색해 보였어.
- (5) 有關材料我看過了, 很遺憾。
관련자료를 살펴보긴 했는데요, 유감스럽습니다.
- (6) 你是不是迷路了。讓我看看你的地址。
길을 잃으신 건가요? 주소를 좀 보여 주시겠어요.
- (7) 如果明天這個時候, 我看見什麼工人的話, 你需要找個律師來。
만약 내일 이 시간에 제가 어떠한 일꾼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변호사를 부르셔야 할 겁니다.

위의 예문에서 ‘看₁’은 구체적인 시각적 행위 ‘보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행위의 주체는 ‘我’이다. 행위주체가 ‘보는’ 대상인 ‘X’는 각각 ‘男人’, ‘材料’, ‘地址(가 적힌 종이)’, ‘工人’으로, (4)와 (5)에서는 ‘我+看₁’의 앞에, (6)과 (7)에서는 ‘我+看₁’의 뒤에 출현하고 있다. 출현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실체를 가진 객관사물로 시각동사 ‘看₁’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또한 모두 명사구빈어로 ‘X=NP’이다.

‘看₁’과 공기하는 다른 통사성분을 살펴보면 (4)와 (5)에서는 각각 동태조사 ‘了’, ‘過’와 함께 쓰였고, (6)에서는 중첩의 형태로 출현했으며, (7)에서는 ‘看不見’이라는 가능보어의 형식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형식들은 모두 ‘看₁’의 동작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我+看₁+X’이나 ‘X+我+看₁’ 형식에서 ‘我’는 ‘看₁’의 행위주체에 불과하다. ‘我+看₁+X’이나 ‘X+我+看₁’ 형식은 ‘X’라는 대상에 我라는 행위주체의 시선이 가서 닿는다(看₁)’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看₁’의 행위가 실행되는 순간에 행위대상은 행위주체의 가시범위 안에 존재하고, 행위주체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행위대상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주체가 바뀐다고 해도 ‘看₁’의 시각적 동작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我+看₁+X’ 형식에서 ‘我’와 ‘看₁’의 결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⁵⁾ 또한 ‘我’와 ‘看₁’ 사이에는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不’, ‘沒’와 같은 부정사가 출현하여 ‘我+不/沒+看₁+X’ 형식이 가능하다. 이 역시도 ‘我’와 ‘看₁’의 결합 정도가 느슨함을 의미한다.

2.2 ‘我+看₂+X’

‘我+看₂+X’ 형식에서 ‘看₂’는 구체적인 시각적 행위를 나타내던 ‘看₁’과 달리

5) 이 점은 3.1절 ‘看’의 의미기능 변화에 ‘我’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추상적인 ‘여기다(認爲)’ 의미를 나타낸다. ‘看₂’의 단계를 설정하지 않고 ‘看₁’과 ‘看₃’으로만 구분해서 논의를 진행한 연구자도 있는데 이는 ‘看₂’와 ‘看₃’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둘을 구분 짓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두 의미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모두 ‘看₃’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看’의 의미변화에서 ‘看₂’의 단계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我+看+X’의 통사 형식이 고정될 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주어(화자)의 주관성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용례를 통해 살펴보자.

(8) 我看你們都一樣。

내 보기엔 너네 다 똑같아.

(9) 我看她……不太好。

내가 보기에 그 사람……(상태가)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10) 我看那個複合地板很好, 而且不怕水, 可以隨便拖, 不用維護。

내가 보기엔 저 합판바닥재가 좋은 거 같아요, 게다가 물에도 강하니 막 닦아도 되고 유지보수 안 해도 되고.

위의 예문에서 ‘看₂’는 단순한 ‘보다’가 아닌 ‘여기다’라는 인지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X’는 행위주체인 ‘我’가 보고 생각하는 즉 ‘인식하는’ 대상이 된다. ‘X’의 통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看₁’에 후행하는 ‘X’가 명사구였던 것에 반해 ‘看₂’의 뒤에서는 절(小句) 형식(X=NP+VP)으로 출현하고 있다. 행위주체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NP) 뒤에 그 실체에 대한 행위주체의 생각을 나타내는 내용(VP)이 출현하는 ‘看₂+NP+VP’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행위주체 ‘我’는 ‘NP’가 나타내는 실체를 보고 그것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지각을 통해 사고한 내용을 ‘VP’로 나타낸 것이다. (8)에서는 행위주체 ‘我’가 먼저 ‘你們’, 더 정확히는 ‘你們의 언행’을 지켜본 다음 ‘你們都一樣’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9) 또한 ‘她’를 살펴보니 ‘她的 상태’가 ‘不太好’인 것 같다는 행위주체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10)에서는 ‘複合地板’을 살펴본 후 그 ‘複合地板’이 ‘很好’, ‘而且不怕水’, ‘可以隨

便拖’, ‘不用維護’ 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행위주체가 직접 보는 대상 ‘你們’, ‘她’, ‘複合地板’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기는 하지만 행위주체는 사물뿐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주변의 상황까지도 지각하고 있다. 또한 ‘X’가 표현하는 내용은 행위주체의 가시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사실이 아니라 행위주체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러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看₂’의 앞 행위주체는 ‘我’ 이외의 다른 인칭대사가 쓰일 수 없다. 행위주체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행위주체가 바로 화자여야만 한다. 다른 인칭대사를 사용할 경우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8') *你看你們都一樣。

(9') *你看她.....不太好。

(10') *你看那個複合地板很好, 而且不怕水, 可以隨便拖, 不用維護。

위 예문들의 경우는 ‘看’이 2인칭대사 ‘你’와 결합하여 사용된 것으로 여기서 ‘你看’은 청자에 대한 주의환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曹秀玲 2010)⁶⁾ 이와 같은 결과는 呂叔湘(1999:331-332)이 1인칭주어에 동사나 절 형식의 목적어를 취하고, 평서문에 출현한 ‘看’은 ‘여기다’ 의미를 나타내며, ‘看’ 뒤에 휴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我+看₂+X’ 형식은 사실상 ‘我+看₁(관찰하다)+NP’와 ‘我+看₂(여기다)+NP+VP’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看₂’는 ‘관찰하다’와 ‘여기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看₂’의 ‘관찰하다’라는 동작행위가 실행되는 순간에 관찰대상인 ‘NP’는 행위주체이자 화자인 ‘我’의 가시범위 안에 존재한다. 이와 동시에 ‘여기다’라는 인지행위는 인지행위주체인 화자의

6) ‘你看’이 사용된 경우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와 용례의 적법성 여부는 본고의 논의 범위가 아니므로 상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예문의 ‘*’는 단지 ‘我看’이 사용된 경우와 표현하는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만을 의미한다.

가시범위 안에서가 아닌 화자의 인식 속에서 진행된다. 이때 행위주체는 반드시 화자여야 하므로 ‘我’와 ‘看₂’의 결합은 문장구성의 절대조건이 된다. ‘看₂’가 여전히 ‘관찰하다’라는 동작의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了’, ‘着’, ‘過’ 등과는 공기할 수 없다. 이는 ‘看₂’에 동작의미뿐만 아니라 ‘여기다’라는 추상적인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어 ‘看₂’의 동작성이 다소 약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我’와 ‘看’ 사이에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있었던 ‘我+看₁’의 경우와는 달리 ‘我’와 ‘看₂’ 사이에는 다른 성분이 출현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我’와 ‘看₂’의 관계가 절대적일 뿐 아니라 ‘看₁’과 결합했을 때 보다 훨씬 긴밀해졌으며, 비교적 고정적인 통사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我+看₂+X’ 형식은 화자인 행위주체 ‘我’와 ‘관찰하다’와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의미가 확장된 ‘看₂’, ‘관찰대상+인지내용’을 나타내는 ‘X’가 결합하여 구성한 ‘화자가 어떤 대상을 관찰한 후 어떠하다고 여기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구문⁷⁾이라 할 수 있다.

2.3 ‘我+看₃+X’

‘我+看₃+X’는 기본적인 통사적 특징은 ‘我+看₂+X’와 같지만 ‘看₃’은 더 이상 동작행위 의미를 나타내지 않게 되고 ‘我’와 더욱 긴밀하게 결합하게 되면서 화자의 주관적 견해나 평가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 것이다.

7) Goldberg(1994)는 구문을 ‘특정동사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식과 의미의 대응물’로 정의하고, 구문의 문법적 단위 설정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구문이란 문장 안의 단어와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의미를 가진 구조이다. 따라서 구문은 단순히 어휘항목의 결합체, 그 이상의 언어단위로서 어휘항목과는 별도로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위이다. (정주리2006:207) 재인용.

- (11) 我看我還是送你回家吧。
아무래도 내가 당신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12) 我看這樣吧, 我們先試工三天。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한 삼일만 일단 해 봅시다.
- (13) 我看你呀, 趕緊去找個律師吧!
어서 가서 변호사나 구하세요!
- (14) 我看, 我們還是分了吧!
내 생각엔 우린 아무래도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11)-(14)에서 ‘看₃’은 ‘我’와 함께 후행하는 내용이 모종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견해, 판단임을 나타내고 있다. 관찰의미(看₁)에서 ‘여기다’라는 인식의미까지 확장된 ‘看₂’가 화자 ‘我’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我看₃’으로 하나의 단위가 되면서 점차 ‘관찰하다’라는 동작성은 더욱 약화되고 반면에 ‘我’에 의한 화자 주관성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曾立英(2005)은 관용어화(成語化, idiomization)로 보았으나 銀菲(2012)는 관용어화는 단지 구어에서 사용될 때 습관적으로 이음절로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我看’은 결합이 긴밀하고 의미 또한 ‘我’와 ‘看’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로서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어휘화(詞匯化)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고 역시 ‘我看₃’을 어휘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한다. 어휘화된 ‘我看₃’이 담화표지의 기능을 하고 있고, ‘看₃’은 동작동사가 아닌 담화표지의 구성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我看₃’ 뒤의 ‘我’, ‘我們’, ‘你’는 모두 관찰이나 지각의 대상이 아니라 후행문장이 나타내는 동작의 행위주체가 된다. 또한 ‘我還是送你回家吧’, ‘我們先試工三天’, ‘你呀’, ‘趕緊去找個律師吧’, ‘我們還是分了吧’는 화자인 ‘我’가 청자가 자신과 함께 하거나 청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즉 ‘我看₃’에 후행하는 ‘X’는 바로 화자의 관점, 태도, 판단, 제의 등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我看₃’과 ‘X’는 통사적으로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통사구조상 ‘我+看₃+X’가 ‘我+看₂+X’와 동일해 보이지만 그 내부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我+看₂+X’가 ‘我+看₁(관찰하

다)+NP'와 '我+看₂(여기다)+NP+VP'의 의미를 나타내던 것과 달리 '我+看₃+X' 구문에서는 먼저 '我'와 '看₃'은 긴밀하게 결합하여 '我看₃'이 된 다음 'X'와 결합한 '我看₃+(NP+VP)'가 된 것으로 '我看₃'은 후행하는 'X'의 서술에 참여하지 않고 인식의미만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我+看₃+X'는 사실상 '我看₃+X' 구문으로 화자인 '我'의 주관적인 판단을 말하거나 청자에게 제안을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이때 '我看₃'은 후행하는 내용이 화자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담화표지이다.

하나의 단위가 되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으므로 '我'와 '看₃'사이에서 다른 성분이 출현한다거나 뒤에 시태조사 '了', '着', '過' 등이나 보어 등과 같은 성분이 공기하는 것은 불가하다. 반면 후행하는 내용과 통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후행절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我看₃'은 문장 내에서 위치가 자유롭다. (14)와 같이 '我看₃' 뒤에 휴지가 있을 수 있는 것도 '我看₃'과 후행성분사이의 통사적 관계가 느슨함을 나타낸다. 姚占龍(2008)은 (11)과 같이 '看₂' 구문과 동일한 통사형식은 담화표지의 초기단계이고 (14)와 같이 휴지가 주어진 형식은 '我看₃'이 문법화가 진행되어 문장부호에 의해 후행성분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실제 의미관계도 느슨해졌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또 '담화표지는 통사구조 이외의 성분이거나 느슨하게 통사구조에 부착된다'는 담화표지의 기본특징에 부합된다.(方梅2005)

담화표지로서의 '我看₃'은 문장 내에서 위치가 자유롭고⁸⁾ 생략을 해도 문장이 비문법적이 된다거나 이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택성 성분이다.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11') 我還是送你回家吧。

(12') 這樣吧, 我們先試工三天。

(13') 你呀, 趕緊去找個律師吧!

(14') 我們還是分了吧!

8) Brinton(1996), 曾立英(2005:16)에서 재인용.

앞서 제시한 예문들에서 ‘我看₃’을 생략한 후에도 문장이 표현하는 의미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담화표지는 일정한 기능⁹⁾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장에서 담화표지의 사용여부는 발화상황에서 청자 및 다른 발화관련 요소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경향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我看₃’의 경우 역시 후행내용에 대한 화자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나 평가를 나타내고 있고 ‘我看₃’을 사용했을 때가 더 완곡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화자의 입장을 더 명확히 나타내게 된다. 즉 주관성이 더 강하고 ‘내가 바란다’는 의미가 강조되게 된다.

3. ‘我看’의 담화표지로서의 문법화

3.1 ‘看’의 의미변화와 ‘我’의 기능

이상에서 살펴본 ‘我+看+X’ 형식에서 ‘看’의 변화는 ‘看₁’에서 ‘看₂’로의 제1단계와 ‘看₂’에서 ‘看₃’으로의 제2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1단계는 시각동사 ‘看₁’의 의미허화 단계로 ‘看₁’의 시각적 동작의미는 점차 추상적 인식의미로 의미가 확장이 되는 단계이다. ‘我’와의 빈번한 결합과 후행성분의 ‘X’의 변화는 ‘看’의 동사적 의미를 약화시키게 되고 ‘我’와의 결합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我’와 ‘看’이 결합한 주술구조¹⁰⁾는 어휘화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看’ 의미변

9) 담화표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方梅2000:462)

- ① 話語轉接(turn-taking)
- ② 話題處理(topic management)
- ③ 指示說話人的態度
- ④ 指示段落或意群的開始和結束

10) 기존 연구자들은 ‘我’와 ‘看’이 결합하여 주술구조를 형성한 것이 ‘我看’의 문법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고 있다.

화 제2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看’만의 문법화가 아닌 어휘화된 ‘我看’의 문법화가 진행되고 ‘我看’은 점차 담화표지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我’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의 일부 연구자들은 ‘看’과 ‘我看’의 문법화과정을 동일시해서 구분 없이 서술하거나, 둘을 구분하기는 했지만 ‘我看’의 의미기능 변화에서 ‘我’가 구조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경향이 있다. 銀菲(2012) 또한 ‘我’가 감정이입(移情, empathy¹¹⁾)기능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존 연구의 부족함을 언급했다. ‘我看’의 변화는 ‘我’라는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통한 주관성 강화 과정이다. 바로 ‘화자의 감정이입’ 과정이다. ‘我’라는 인지주체의 초점을 통해 ‘看’의 주관성이 강화되고 동작행위공간이 인지공간으로, 더 나아가 발화공간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즉 담화표지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동사 ‘看’의 의미변화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의미변화가 진행된 ‘看’에 화자자신을 가리키는 ‘我’가 결합된 구문을 형성하면서 더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사의 문법화는 어휘의미의 약화, 통사기능의 변화인데 이것만으로는 화용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때 ‘我’가 통사층위에서 화용층위로의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 S Kuno & E Kaburaki(1977)은 화자가 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일반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입장(position), 태도(attitude), 혹은 관점(view) 등이 문장의 구조에 반영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Empathy(감정이입)’라는 언어학적 용어로 새롭게 개념화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mpathy is the speaker’s identification, with varying degrees(ranging from degree 0 to 1), with a person who participates in the event that he describes in a sentence.”

(감정이입이란 화자와 문장에서 묘사하는 사건속의 참여자와의 동일시를 의미하며, 0에서 1까지의 정도로 나타낸다.) S Kuno and E Kaburaki(1977:628)

Empathy는 0과 1사이의 연속체로서 empathy가 0이면 화자가 대화참여자들 전혀 모르는 경우이고, empathy가 1이면 화자와 참여자가 완전히 동일시되는 경우이다. 이론적으로는 empathy가 0이면 화자가 어떤 사건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의미하고, 1이면 화자가 대화 참여자로 등장하는 것이다. 장경기, <Empathy와 영·한 왕래동사의 관련성>, 《현대영미어문학》, Vol.27 No.1, 2009, 152-153참조.

3.2 ‘我+看+X’의 문법화

‘看₁’에서 ‘我看’까지의 변화발전 과정은 일련의 문법화과정이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통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재분석¹²⁾이 발생했다.

- 看₁+ X(NP)
- 看₂+ X(NP + VP)
- [我 + 看₂ + NP] + VP
- [我 + 看₃] + [NP + VP]
- [我看₃] + [NP + VP]

재분석에 의해 ‘我’, ‘看’, ‘X’ 사이 결합의 구조 층차가 달라졌다. 재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我+看’ 구조는 ‘X’와 분리된 독립적인 단위로 문법화 되었다.

‘看₁+ X(NP)’ 구조에서 ‘看₂+ X(NP + VP)’로의 변화는 어휘의미의 변화를 발생시켰다. 여기서 다시 ‘[我+ 看₂ + NP] + VP’로의 변화과정에서는 ‘看’ 앞의 인칭대사에 의한 ‘看’의 동작성 약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看’은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사고과정을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통사환경에서 ‘看’이 표현하는 의미는 확장된다. 즉 시각대상에 대한 단순한 관찰에서 ‘X’의 내용이 지각대상에 대한 관찰의 기초 위에 사고의 과정을 거쳐 그 대상과 관련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더욱 확장된다. 여기서 ‘看’의 의미변화가 특정한 통사환경에서 탄생한 의미 확장임을 알 수 있다. ‘看’ 앞의 ‘我’는 ‘看’의 주관성을 확실하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관찰의미에서 인지의미로 또 다시 담화표지로 발전한 것은 주관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동작행위공간에서 인식공간으로 또 다시 발화공간으로의 영역전환이 발생하게 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2) 재분석은 표층구조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표현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다. 모든 언어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 합병(fusion)이나 괄호다시치기(rebracketing)라는 장치를 통해 실현된다. Hopper & Traugott(1993:32,40-48) 참조.

[주어의 동작행위-보다/관찰하다]

↓ 의미확장

[화자의 인식행위-여기다]

↓ 영역전환
(주관화)

화자의
견해, 판단, 제의

3.3 ‘看來’와의 평행성

이상에서 살펴본 ‘我看’의 의미기능 변화는 또 다른 담화표지 ‘看來’의 변화발전 과정과 아주 유사한 면을 보인다. 方一新·雷冬平(2006)¹³⁾에 따르면 ‘看來’는 관찰의미를 나타내는 ‘看’에 사태조사(事態助詞)¹⁴⁾ ‘來’가 결합하여 추측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이때 ‘來’는 ‘看’의 뒤에서 어떤 것에 대한 추측이나 견해를 표현하는 것으로 추상영역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낸다고 했다. 화자가 발화시나 특정상황에서 본 것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여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계속해서 주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我看’의 의미기능 변화와 동일하다.

이러한 현상은 ‘我’와 ‘來’의 직시적¹⁵⁾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직

13) 方一新·雷冬平, <近代漢語“看來”的詞匯化和主觀化>, 《周口師範學院學報》, 第23卷 第3期, 2006, 107-111.

14) 근대중국어에서 다수의 ‘來’는 절이나 전체 문장 끝에 쓰여 주로 과거 시간에 어떤 사태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긍정, 확인하는 기능을 하며, 어떤 사건이나 과정이 과거에 발생했거나 발생한 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용법이 ‘事態助詞’의 용법이라고 하였다. ‘事態助詞’라는 용어는 曹廣順(1995:98)이 제시한 것이다. 梁銀峰(2007:104)에서 인용.

시는 보편적인 언어 현상으로 모든 자연 언어들이 직시표현을 가지고 있다. ‘我’는 인칭직시에 ‘來’는 이동직시에 해당한다. 직시요소를 해석할 때는 직시중심(deictic center)이라는 기준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화자가 직시중심이 된다. 직시소로서 ‘我’와 ‘來’는 ‘화자중심적’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징이 관찰의미를 가진 ‘看’과 결합한 ‘我看’과 ‘看來’라는 두 구조에서 화자의 주관적 심리를 반영하는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담화표지가 된 것이라 생각된다.

4.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我+看+X’ 형식에 출현한 ‘看₁’은 ‘눈으로 대상을 보다’라는 행위주체의 구체적인 시각적 행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감각동사로 사용되었고, ‘看₂’는 인식대상에 대한 추상적인 ‘여기다’ 의미를 나타낸다. ‘看₃’은 행위주체 ‘我’와 더욱 긴밀하게 결합하게 되면서 화자의 주관적 견해나 평가를 나타냈다. ‘看₁’에서 ‘看₂’로의 변화는 ‘X’성분의 구체적인 출현 형식 변화가 의미변화의 환경을 제공해 주어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X’가 단순 ‘NP’에서 ‘NP+VP’ 형식으로 출현하면서 의미변화를 발생시켰고 객관적 사물에 대한 구체적 동작행위를 나타내던 것에서 심리적 인지행위를 나타내는 성분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은유에 의한 의미확장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我’가 고정적으로 출현하게 되면서 ‘我看₃’은 점차 ‘X’와 분리되어 하나의 단위가 된다. 이때 ‘我’가 가진 직시적 특성에 의해 ‘我看₃’은

15) 직시(deixis)는 지시(reference), 지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deixis’에서 차용된 용어로서, 화자의 시공간적 입장이 기준점(point of reference)이 되어 사물을 직접 가리키는데 쓰이는 낱말이나 그러한 문법적 자질이 든 낱말(직시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한 기능(직시)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직시 또는 직시소는 발화의 맥락이나 언어행위의 자질들을 언어가 기호화 또는 문법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며, 그런 발화의 해석은 발화의 맥락에 대한 분석에 의존한다. 영어학사전(1990:321)참조.

주관화가 발생하고 담화표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담화표지 ‘我看’의 발전과정은 ‘看來’의 변화발전 과정과 유사성을 가지는데 이는 ‘我’와 ‘來’의 직시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 參考文獻 >

- 김춘광, 《한국어 ‘보다’와 중국어 ‘看’의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수정, 《동사 ‘보다’의 다의 체계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송효빈, 《지각동사 ‘보다’의 인지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윤명상, 《동사 ‘보다’의 문법화》,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曹秀玲, <從主謂結構到語語標記“我/你V”的語法化及相關問題>, 《漢語學習》(5), 2010, 38-50.
- 陳振宇·朴珉秀, <話語標記“你看”、“我看”與現實情態>, 《語言科學》(2), 2006, 3-13.
- 董秀芳, <詞匯化與話語標記的形成>, 《世界漢語教學》(1), 2007, 50-61.
- 方 梅, <自然口語中弱化連詞的話語標記功能>, 《中國語文》(5), 2000, 459-470.
- _____, <認證義謂賓動詞的虛化——從謂賓動詞到語用標記>, 《中國語文》(6), 2005, 495-507.
- 耿小敏, 《“我說”類元語言的研究》,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高增霞, <漢語担心-認識情態詞“怕”“看”“別”的語法化>,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2003.
- 古川裕, <現代漢語的“中動語態句式”語態變換的句法實現和詞法實現>, 《漢語學報》(92), 2005, 22-32.
- 郭 磊, <淺談“看”義的演變>, 《語文學刊》(8), 2013.
- 郭莉琳, <試探語助詞“看”的語法化>, 《貴陽學院學報(社會科學版)》(2), 2007.
- _____, <語助詞“看”字探討>, 《十堰職業技術學院學報》(2), 2007.
- 郝雙雙, 《“看”的語法化問題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梁恩正, 《“看”、“見”對N的語義選擇及二語習得中的偏誤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李茂寧·玄類雙, <“看”的多重語義分析>, 《文藝生活(藝術中國)》(6), 2011.
- 李 紅, <含“看”的應答詞語及其語義類型分析>, 《現代語文(語言研究版)》(9), 2011.

- 劉麗艷, 《口語交際中的話語標記》, 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 馬淑紅, <關於韓語 보다和漢語看的比較分析>, 《科技創新導報》(17), 2012.
- 馬雲霞, <“看”與“X+看”的語法化與主觀化>, 《北京廣播電視大學學報》(4), 2011, 35-38, 52.
- 王谷全, 《“看”與“look”的語法化對比研究》, 長沙理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王慶霞·王林霞, <話語標記我看>, 《金田(勵志)》(12), 2011, 56-57, 45.
- 王愛香·郭彭冰, <漢語情態標記“看”的歷史考察>, 《大眾文藝》(6), 2010.
- 許家金, <話語標記的現場即席觀>, 《外語學刊》(2), 2009, 83-86.
- 姚占龍, <“說, 想, 看”的主觀化及其誘因>, 《語言教學與研究》(5), 2008, 47-53.
- 岳 昕, <淺析話語標記“我看”>, 《金田》(4), 2013, 206.
- 于海飛, 《話輪轉換中的話語標記研究》,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銀 菲, 《“我看”的詞匯化、語法化及形成模式》,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 張愛玲, <體態標記詞“看”字探討>, 《長春師範學院學報》(3), 2004.
- 張旺熹·姚京晶, <漢語人稱代詞類話語標記系統的主觀性差異>, 《漢語學習》(3), 2009, 3-11.
- 周同燕, <現代漢語中“看”的語法化現象考察>, 《沙洋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6), 2005, 54-56.
- 鄭 雷, <“看”的語法化分析>, 《現代語文》(8), 2006, 34-35.
- 曾立英, <“我看”與“你看”的主觀化>, 《漢語學習》(2), 2005, 15-22.

예문출처: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 中文提要 >

本文以“我+看+X”構式為研究對象, 把“我+看+X”分為“我+看₁+X”, “我+看₂+X”, “我+看₃+X”並對此進行了考察。結果發現“X”成分的變化引起其中“看”的意義功能變化。“看₁”是作為視覺動詞表示觀察意義, “看₂”表示認為意義, “看₃”也表示認為意義, 但它和“我”緊密結合表達說話者對“X”的主觀評價或見解。從語法化的角度看“我看”經過主觀化發展成“話語標記”了。

關鍵詞: 話語標記、語法化、主觀化、看、我看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7. 1.	2013. 8. 7.	2013. 8. 20.	2013. 8. 22.	2013. 8. 31.